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타협안을 제시하는 바로

25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그러나 모세는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27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

28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 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29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나가자마자 내일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께서 명심하실 것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서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31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32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퍅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 목상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신 제사는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백성은 이집트에서의 일상과 그곳의 문화에 젖어버린 삶의 방식을 잠시 멈추고 광야로 나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교묘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집트 안에서 하거나(25절), 그것이 싫다면 광야로 나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입니다(28절). 세상은 마치 바로가 그랬듯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묘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속삭임, 합리적인 타협안에 속지 마세요. 상황이 안정되자 돌변했던 바로처럼,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제든지 돌변해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4 적용하기

세상이 제시하는 타협안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세상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이거 먼저 하고 예배해도 늦지 않아', '성경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해', '교회 다닌다고 유별나게 굴 것 없잖아' 하는 속삭임은 당장은 솔깃하게 들리지만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에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익숙함과 편안함을 벗어 버리고 힘들더라도 결단하고 시작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 ② 삶의 예배에 집중하려는 내게 세상이 제시해오는 타협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끊어낼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무엇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27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를 위하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8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 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29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나가자마자 내일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께서 명심하실 것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31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32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퍅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 궁굼 사전

- * 광야: 사람이 거의 없이 텅비고 넓은 들판
- * 명심: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 두는 것
- * 속임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꾀
- * 강퍅하다: 고집이 세고 성격이 까다롭다

• 말씀 씨앗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바로를 보시고 이집트에 파리 떼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며 또 다시 기도를 부탁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파리 떼를 없애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굳고 약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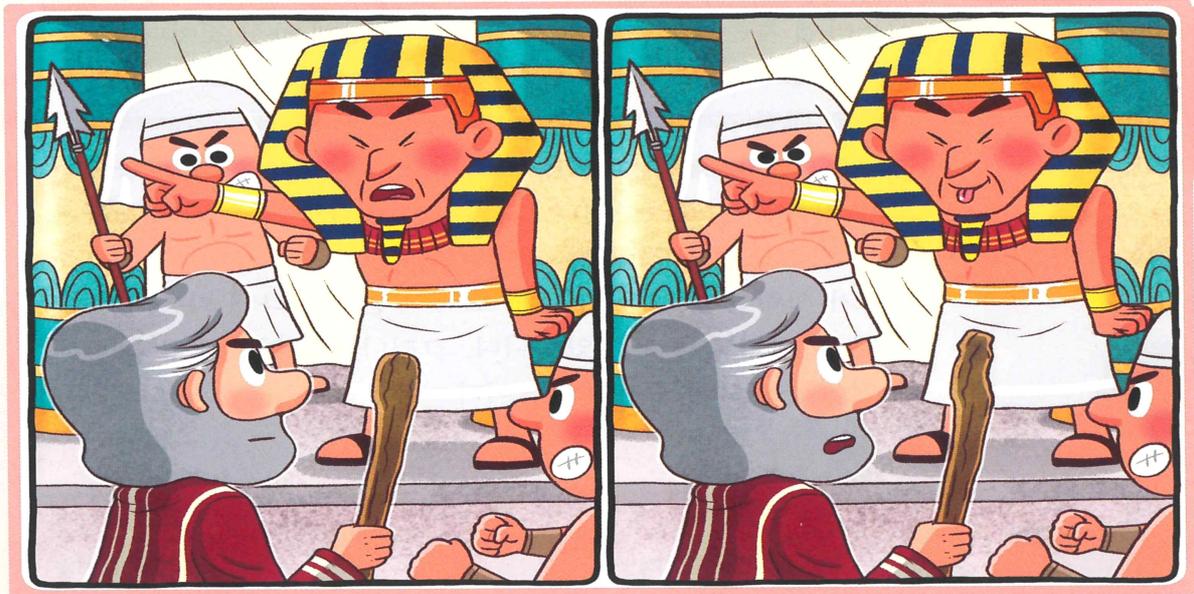
3 말씀 새싹

말씀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 주겠다고 했어요. (28절)	O	X
모세는 바로에게 속임수를 써도 된다고 했어요. (29절)	O	X
아론은 바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0절)	O	X
하나님은 파리 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하셨어요. (31절)	O	X
바로는 마음이 강박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32절)	O	X

5 말씀 열매

그림을 보며 재앙이 그치자 다시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의 고집스런 마음을 닦지 않기로 다짐하세요(서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바로는 재앙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6 기도하기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며 고집스럽게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